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송 명 재
한전 전력연구소 방사선안전그룹장

우리 나라와 멕시코는 동양과서양에 있는 쌍둥이 나라같이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멕시코인들의 관습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그들은 매년 11월 2일을 '망인의 날'로 정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묘지를 찾아 촛불을 켜놓고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이날에 그들은 고인에게 음식과 꽃을 바치는데, 망령이 찾아와 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멕시코는 서양의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의 발상지요, 우리 나라는 중국과 함께 동양 문명의 찬란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 다 아직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IMF의 쓰라린 맛을 멕스코가 먼저 보았고 우리는 지금 한참 고통을 겪고 있다.

멕시코와 우리 나라는 우연히도 프랑스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도 같은 조에 속해 경쟁을 하였다. 비록 우리 나라가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 벨기에와 비김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멕시코를 본선에 올려놓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

멕시코와 우리 나라 간에는 이처럼 비슷한 면이 많지만 또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멕시코에는 세계 최대의 은광을 비롯해서 석유·천연 가스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다. 그리고 햇빛 찬란한 해안이 있어 천혜의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에는 이렇다할 지하 자원도 없고 더군다나 에너지 자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면함이 있고 또 두뇌가 있으며 강한 단결력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멕시코에게 주어진 천연 자원을 누가 더 잘 이용할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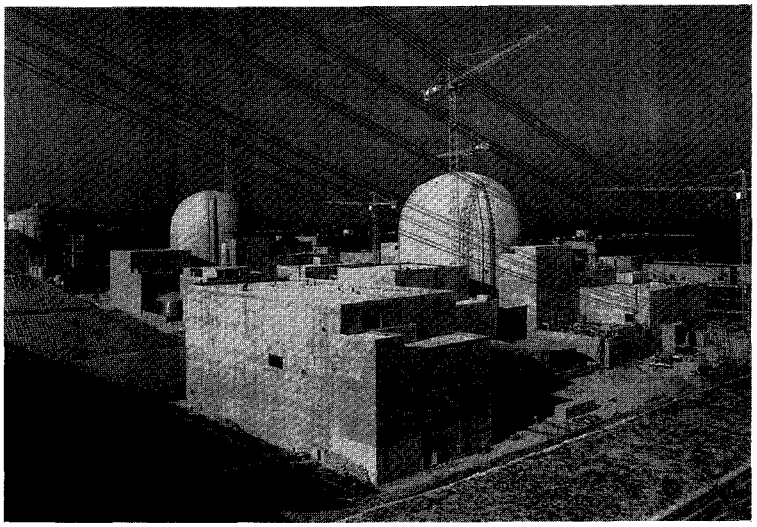
멕시코가 자랑하는 아즈텍 문명을 한 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원래가 유목민인 아즈텍인들은 기원후 1200년경에 멕시코의 중앙 계곡에 정착했다. 불행히도 그들이 머문 곳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어 그 곳에 우글거리고 있는 뱀을 잡아먹고 연명했다고 한다.

뱀고기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에게는 힘이 넘쳐나게 되었던 모양이다. 머지않아 아즈텍인들은 용맹과 잔인함으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하지만 용맹함만 믿은 아즈텍 추장은 인근의 단수가 높은 추장의 계략에 말려 정착지에서 쫓겨나 현재의 멕시코시티가 위치한 곳에 새로이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은 그들은 목테수마라는 강력한 통치자 밑에서 날로 융성했고 유명한 건축가들을 불러다 도시를 치장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수호신을 위해 거대한 피라밋을 지었다. 이집트에만 피라밋이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도 흙벽돌로 지은 거대한 피라밋이 있는 것이다.

목테수마의 증손자인 목테수마 2세는 아즈텍 역사상 최고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아주 엄한 법규를 만들어 통치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고, 간통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으며, 중상 모략하는 자는 입술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는 무게를 잡고 근검한 생활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면에서 그는 사치를 하고 호식을 했으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이 때 그들은 지구의 저편에서 건너온 스페인인들과 마주쳤다. 아즈텍의 한 파수꾼이 스페인인 코르테즈가 지휘하고 들어오는 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고 말았다.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하얗고 온통 수염으로 덮였으며, 화살도 뚫지 못할 것 같은 쇠옷을 입고 온처럼 반짝이는 무기를 가지고 불과 연기를 뿜으며 천둥을 치는 무시무시한 신을 모시고 다녔다.

목테수마는 옛적에 쫓겨갔던 신이 사자를 보내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목테수마는 쫓겨갔다 돌아오는 신의 사자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였다.

목테수마는 그들이 황금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을 가득 담은 자루를 몇 차례 보내는 유화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금 자루는 스페인인들을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점점 더 다가오는 스페인 군대는 목테수마를 더욱 더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목테수마의 동생은 단호하게 싸울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는 항복하는 길을 택했다.

목테수마는 스페인 군대를 환영하고 그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 일로 인해 결국은 아즈텍의 황제는 죽게 되고 유서 깊은 아즈텍 문명도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에 스페인군의 출현에 대해 목테수마가 조금 더 사려 깊은 행동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목테수마의 동생은 근본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그들과 맞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테수마는 우선 편암함을 택했다.

지금 원자력 발전은 곤경에 처해 있다. 반원전 운동가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전기가 있다고 한다. 또 조금만 절전을 하면 전기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골치 아프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은 수만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니 에너지 절약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주장에 동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즈텍의 목테수마처럼 스페인 군대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목테수마의 동생처럼 정면 돌파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원자력을 다루어야 하겠다.